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1면
가. 보건소 소관	1면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15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금일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업무보고는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 참석자인 보건행정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보건행정과장 최원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47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6페이지 보면 참고자료 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참고자료요?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앞서서 집행률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을 철저하게 기재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정신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잔액이 많이 있는 편인데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참고자료나 이런 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어 가지고 이렇게 된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 촉탁의가 7개월 근무로 사직을 하셔서 가지고 인건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팀에 요청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업무보고 자료랑 별개로 지난 회기 때였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신보건팀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처우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제가 드렸을 때 정말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분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직접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

실한 느낌이 본 위원조차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신 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 정신보건팀 직원과 청년마음건강센터에도 직원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도 정신보건센터 광역에서도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김미성 위원** 사실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실제로 겪고 있는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어렵겠지만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비슷한 취지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절반은 조금 더 집행한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된 이유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맘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충남 거주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민행복카드라고 먼저 지급된 포인트를 소진 완료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완료 후에 사용하는 모든 진료비에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 수가 228명 정도 되긴 했는데 다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신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이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절반을 조금 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산후관리비 지원 있습니다.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6개월 거주를 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출산장려금도 잘 아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출산장려금이요, 예.

○김미성 위원 예, 출생축하금이죠?

출생축하금이 여성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산후관리비랑 출생축하금의 조례가 조금 달라져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축하금을 받는 경우는 더 많지만 산후관리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아산시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 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이주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방 지역에는 앞으로 8000세대 되는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외조항인데요.

출산장려금은 기본적으로 6개월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을 거주해야 되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을 사는 분들은 받게끔 되어 있지만 산후관리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산후관리비의 목적성을 중점을 뒀서 산후관리를 목적, 출생장려금 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후관리비 지원조례가 거주요건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됐기도 했고 그래서 차츰 이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일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방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현금성 복지지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오는 피부는 다르고요.

그리고 6개월을 거주한다는 건 사실상 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여성복지과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예외조항이 있음으로서 문제가 없냐고,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성복지과는 읍부즈만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른,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에 위원** 참고자료는 46페이지고요.

본 페이지는 54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정한 점이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에 위원** 지금 이걸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의약업소관리 중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도점검 마약류 안전관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수술실에 뭐를 지원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2023년 9월 25일에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수술실 CCTV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성 점검을 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여기에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미 병원에 설치한 병원도 있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설치된 곳이 있었기도 하지만 자부담 부담으로 더 추가적인 설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에 위원**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이게 의무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50%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의무화를 한 병원에 CCTV를 설치를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수동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한 곳은 CCTV 화상도가 과연 얼마만큼 화상도가 받쳐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이기에 위원 그만큼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되도록이면 적게 남기고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시내권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과장님께서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외곽 쪽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쪽에 저는 분명히 아마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지금,

○이기에 위원 지금 소매업소만 해도 약국만 해도 한 111개라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접촉을 하는데 모 약국에만 가면 금방 그 약만 나서서 온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어느 마약류가 습관적으로 포함돼서 약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많은 약국에 1400, 1500개가 넘는 약국을 전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복적으로 많이 민원을 야기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대대적으로는 못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특히 외곽 쪽에 있는 약국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약을 평상시에 너무 많은 약을 드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은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해서 소매업소에 많은 마약류가 포함된 약이 저는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저는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저는 확정을 짓고 있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외곽 쪽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래서 다음 번에는 본 위원한테 단속했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7페이지예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

지금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됐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소득 기준 폐지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폐지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지금 많이 전년도보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2021년에는 715명, 2023년 811명 아마 이게 중위소득이 폐지가 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1000명은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마 그럴 수, 예.

○**천철호 위원** 어떻게 보면 더블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나요?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지금 예산으로는, 예, 가능할 것으로 하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모자르면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좀 간단한 건데 참고자료 37페이지하고 538페이지하고 소요예산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 는 달라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면 참고자료로는 6억 3천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난임, 538쪽은 전체 난임사업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됐구나.

또 하나 궁금한 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시술 종류와 나이별로 최대 지원금이 상이함이라고 돼 있는데 시술 종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이별로 최대 지원금이 상이하다고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나이별로 45세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천철호 위원** 어떻게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잠시만요.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인 경우 신선배아인 경우는 회차별로 최대 110만원 또 만 45세 이상인 경우는 최대 90만 원 해 가지고 45세 이상은 조금 적게 지원하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것도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한 건지 아산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이게 45세 이상은 아무래도 임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좀 지원이 조금 적지 않나,

○천철호 위원 그거는 저희 판단이죠. 조금 더 절실할 수도 있거든요, 45세 이상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렇게 차등을 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천철호 위원 질의 한번 해 주시고 답이 오면 본 위원한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질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의 염려되는 사항을 보다 보니까 이 사업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게 항상 틀에서 행정에서 아웃라인을 맞춰놓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뭘 요구하는 거고 좀 더 좋은 방향성을 찾는 거잖아요.

잘한 거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정 부분, 소득 부분에서 나뉘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장 안정근 이런 것처럼 좀 나

아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이렇게 나아지는 행정처리가 되고 그거는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면 그건 다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베풀어 준 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행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543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8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여쭙볼게요.

저한테 이분들 올해 그리고 작년 일 지나 성과나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일지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말씀드리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시킬 때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시키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금연지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이분들한테 6개조로 분리를 해서 마을을 6개조로 분리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한 달에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40개소 정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일지를 쓰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일지에 대한 부분을 100% 신뢰하시냐는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예, 그 부분들이 갔다온 곳은 금연지역 담당 주민들 있잖아요.

그 업주들한테 사인을 받아오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업주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 인근에, 만약에,

○박효진 위원 그거는 캠페인 할 때나 그럴 때고 평상시에 단속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

단속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예, 단속일지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예.

○박효진 위원 100% 신뢰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만일 일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간도 적혀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부분도 적혀있고 분명히 지도단속원의 조끼나 지도, 단속에 대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 지켜 볼 생각인데요.

보완, 발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서 한번 더 이분들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업이 금액적으로 큰 돈이고 아산시 돈으로 시의 행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예산이.

이 부분들을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지뿐만이 아니라 시간, 장소 그다음에 날짜까지 나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지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현재는 지도, 점검 나갔던 장소에 업주들의 성함이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업주의 부분은 무관하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주분들은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사

인 받으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박호진 위원이 질문한 거 마저 할게요.

상당히 어려워요, 금연 지도 단속, 그렇죠?

실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실적은 많이 있는데…….

○천철호 위원 많이 있어요?

과태료 매긴 것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과태료는 다섯 건,

○천철호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실적을 말하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지정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금연 아파트 지정하고 있으면 거기 금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 세워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다른 거는 아직…….

○천철호 위원 그렇죠?

참고자료 보면 금연구역이 아파트로 지정해도 금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도 이거를 신청하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 1층 캐노피나 그런 데서 지역이 이게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 1층에서 피는 거는 단속 안 하잖아.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

금연 아파트면 아파트 전체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데 1층 외부에서 피는 것도 허용이 돼.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가 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천철호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그럼 거기가 금연 아파트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동대표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거 너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 이거 상위법에 나온 거예요?

아산시만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상위법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상위법?

상위법도 완전 탁상행정이다, 그렇죠?

금연 아파트는 전체에서 피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음주문화 조성해서 이번에 조례 발의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실행

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전국적인 예를 많이 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천철호 위원 실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천철호 위원 저희는 실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온양온천역 일대는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온양온천의 첫 이미지는 과장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네.

천철호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큰 임무를 부여해 주시네요.

저는 75페이지에 참고자료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보완할 점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국, 도비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알뜰하게 집행잔액 0으로 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행정 쪽에 질의를 하실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에 박힌 사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변화하는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와 보라고 하면 전년 대비 변화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한 사업, 아주 변화하는 사업들만 아니면 국, 도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왔다든지 뭐하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한 두 개 올라오게 되죠.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이거 몇 년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이기에 위원 몇 년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여기 왔기 때문에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년도 거나 오래된 사업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걷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체 활동사업 중에서.

성과 좋았습니다.

충남에서 1등을 했어요, 건주 사업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시간이 좀 돼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들여다 봤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떠한 사업을 할까라고 다 자기만의 특색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건강사업은 생애주기별 이런 영양 같은 거를 맞춤형으로 해서 시민들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사업이 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쪽 보니까 건강수준하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신체활동 사업도 뒷장 넘어서 보면은요, 지금 유아들 어린이 건강교실이나 이런 거에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빠져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요, 생애주기별 시작을 해서 유치원 영아 초등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7개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양교육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유치원도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쪽에도 아이들 건강실천사업은요, 그 아이들이 가장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 유아 비만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

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영양 이런 쪽에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어린이 아이들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어르신 건기까지 맞춤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비만이나 뒷장에 보시면 비만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지원사업이 같이 있는데 이 사업도 건강생활실천사업도 함께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이견 아까 말씀드린 금연이랑 반대되는 겁니다.

흡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금연이라는 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논리는 사람들 인식 속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금연하는 걸 알지만 흡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끊지 못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든 피야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금연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는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하는,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지정된 분들이 흡연할 수도 있고 흡연 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한 군데서 피해가 안 되는 쪽에서 흡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이런 음식,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들 있잖아요.

상가 같은 데는 흡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눈치봐서 흡연하면 안 되는데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싸움나는 걸 조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 잘못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볼 때는 왜 금연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일은 아니겠지만 금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흡연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 아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 가끔 흡연구역이나 이런 것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흡연구역은 당연히 건물주가 스스로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한테 담배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안 하죠.

돈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왜냐하면 여기는 흡연구역이니까 담배 안 피는 분들, 저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인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분쟁이 조금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행정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저는 과장님 질병 예방과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우려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려 가지고 후유증으로 계속 약간의 잔기침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주변에 코로나가 많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를 감춘다기보다 키트를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철호 위원님도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지금 현재 코로나나 독감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방주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단계인 거는 알고 계시죠?

심각하다,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정식으로 단계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독감이나 코로나가 조금 더 많이 유행

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병원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샘플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행상황을 하수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유행상황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는 있어요.

질병청, 국가차원에서, 그래서 아산에도 지금 하수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기에 위원 하수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를 언제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하수검사는 지금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는 안 하고요.

○이기에 위원 예, 예, 질병 거기다가 올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면 별다른 저기는 없네요.

지금 걸리면 그냥 걸려야 되겠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개인생활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역이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 외로 홍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에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병원을 가면 아이들서부터 독감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 거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독감도 한 72% 정도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방접종을 본 위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못 당하겠더라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맞습니다.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거는 개인생활 손 씻기 같은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같은 개인생활 수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하고 또 같이 예방접종을 맞은 집사람이 독감을 일주일 내내 앓아서 어제 저도 한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기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언론을 통하면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나라가 떠들썩한데 언론이 말을 안 하면 그냥 모든 게 평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빈대 온나라 난리났었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얘기 안 하니까 조용하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AI 저희 둔포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예.

○**천철호 위원**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AI가 사실은 지금은 조류독감이잖아요.

○**천철호 위원** 예, 예.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그게 인체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AI가 발생을 했을 때 인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처분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살처분이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가 대기를 해서 인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끝까지 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살처분 농장에 있는 거 전부 다 했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농장에 있는 거 전부 했죠.

밤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대기하고…….

○**천철호 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은 그 일, 축산과에서 할 일은 살처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예, 저희는 인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천철호 위원** 예, 다른 농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발생하지 않은 곳이에요?

○천철호 위원 예, 예.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발생하지 않은 곳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렇죠.
 ○천철호 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심각성을 얘기하면 다들 대비를 잘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일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들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안정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평생학습센터소장 전병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과약은 다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577페이지예요.
 아산시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요즘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죠?

소요예산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무슨 예산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가장 크게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강사료가 14억으

로 제일 많고요.

읍면동 평생학습매니저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인건비로 3억 8천 정도 소요가 되고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억 3천 그다음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자로 해서 청소하는 인력으로 1억 9천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도비사업 포함해서 4500, 사무관 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2억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매니저가 3억 8천이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거기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매니저로 해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 직원으로 채용하신 분이 17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분들도,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아, 14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 17개 읍·면·동 중에 수요가 많지 않은 염치, 인주, 영인, 선장, 운양4동 같은 경우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치 않다 해서 배치를 안 했고요.

○천철호 위원 거기는 매니저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매니저, 예.

○천철호 위원 17개 읍·면·동 직원은 채용 했잖아요.

직원 채용,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직원 채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천철호 위원 직원들 월급만 해도 꽤 되겠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 그 업무로 해서, 저기로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예전에는 사무장을 두고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분들 월급이 보통 70만 원, 80만 원이었어요, 시간제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매니저만 따져도 직원까지 하면 본 위원이 200만 원씩만 따져도요.

직원 인건비랑 따져도 매니저까지 하면 거의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2400만 원…….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저희가 14명이 3억 8천이니까 그 정도,

○천철호 위원 그건 매니저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직원을 해 볼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대략 아마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철호 위원 4억 정도 되죠.

4억이면 거의 8억이예요.

그런데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무국장님 한 분만으로 이게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분들 계산해 보면 1억 4800 정도예요.

이번에 이렇게 평생학습과로 오면서 그렇게 직원을 늘린 게 8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1억 4800에 아무 문제없이 했던 거를 갑자기 평생학습과로 가져가면서 인건비만 거의 8억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황당한 건 도비가 135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그거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수행하는 사업.

그 사업은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읍면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천철호 위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작년까지는 저희가 2022년도에는 2개소, 작년도는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7개 읍면동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에 28개 프로그램이 290명을 운영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26개 프로그램에 255명을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 정도 되면 도비 안 받는 게 낫죠.

1350만 원 하고 도에서 그냥 다리 하나 올려놓는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했다, 1350만 원 하고 도비 하고 시비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낮부끄

럽지 않아요?

제가 어차피 일은 벌어졌어요.

어차피 매니저분들 6개월 근무를 하셔야 되고 직원들 저기인데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반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게 세 번 학습할 수 있는 걸 평생학습과에서 두 번만 하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현장에서 현장 사전에 서로 회의를 한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에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력을 고용을 승계해 달라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으니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게 해 달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기 때 운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같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월에 공고가 나갈 건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좋아서 대기가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는 분반까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니다.

○**천철호 위원** 분반된 경우에 어느 동은 분반이 안 되고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 어느 동은 분반이 돼서 그 반이 두 개가 돼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분반을 한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세 번 하던 시간을 두 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기본적으로는 거의 세 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대부분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분반 전에 횡수하고 분반 후의 횡수가 다르다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형평성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개 읍면동이 다 형평성이 맞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인기가 많으면 만약 6동에 어느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분반을 했어요, 30명에서 60명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이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6개 읍면동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런 잣대로 가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잘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지 다른 읍면동도 똑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형평성을 대가지고 그렇게 제재를 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완전 다르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강의장 사정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 문제는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14명 인건비로 해서 3억 8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도 읍면동에서 수행한 인건비는 거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예산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읍면동 자치회에서 운영을 했던 거를 세외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천철호 위원** 수강료 말씀하지 말고 그분들, 지금 직원 한 분 두신 분 하고 매니저가 하는 일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800에 대한 돈으로 다 진행됐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무난하게.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8억이라는, 어차피 사람 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직원을 채용했으니까.

그러면 1억 800에 했던 사업을 8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철호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지금 제가 3동에서 지난 1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온양3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4시간 짜리 봉사자로 해서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 재무님이 프로그램 컨트롤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온양3동의 주민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전혀 하지 않고 노력봉사,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 주시는 분은 감사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냥 노력 봉사로 그분들의 인력을 쓰기에는 조금 시민들을 위한 거에서 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동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와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사람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 했으면 아마 커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지금 행정의 먼저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요.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분들하고 소통도 있었고 그분들 면접 또한 그분들이 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주민자치 회원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체력장 단련의 수입을 어느 정도 자신들이 청소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동하는데 썼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다 뺏어가버렸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를 할 의욕이 없어.

제가 과장님한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또한 냅두리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말씀은,

○천철호 위원 잘 되는 거는 그냥 놔둬야지.

갑자기 갖고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천철호 위원** 자꾸하면 저기 될 것 같아.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알겠습니다.

○ **천철호 위원** 냅두리 한 거고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 **천철호 위원** 또 하나 585페이지예요,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20회에서 10번, 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줬던 말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 **천철호 위원** 그래서 반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사업을.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산부족 10회 강사료로 해서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자료는 돼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 **천철호 위원** 그럼 저희 시의원들이 20번을 10번으로 줄여서 한번 잘해 보라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는 역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추경 때.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천철호 위원** 그럼 저희가 그렇게 논의해서 어렵게 예산을 통과 시킬 일이 없죠.

저희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냥 다음에 또 올라오면 되는데?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금년도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회의 중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안타까워 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가 시민 대상 아카데미인데 시민은 얼마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다,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지 왜 굳이 시청에서만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시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의 각오는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전에 ‘선착순 입장입니다.’를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찾아가서 하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시청에서 운영하던 방법과 병합하여서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철호 위원** 과장님 시간 금방가요, 1년 금방가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 **천철호 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10번 하기로 해서 통과했으면 올해 10번을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 할 때 그때 20번 하자 그러면 그 효과를 본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굳이 꼭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추경

에 올리시겠다고 올라오니까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아, 예, 사전에 금방 작년 연말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반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천철호 위원** 상반기에 10번을 다 세워놓은 거네요, 지금?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에 위원** 예,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게 아산시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전환이 되면서 평생학습이 각 17개 읍면동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사업이 평생학습센터 중에 가장 큰 새로운 사업이 아닌가,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에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계획과 현장과 방문을 지금 쉽 없이 가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에 위원** 그래서 일단은 수요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그 얘기를 가장 경청을 많이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평생학습은 아산시민이 원하는 대로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

우리 집행부들은 사실은 거기 속에서 뭔가 저희들이 서포트 할 수 있는 체계 구축만 저희들이 리더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맞습니다.

○ **이기에 위원** 과연 지금은 매니저나 아니면 주민자치의 직원들을 등용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반반이에요, 찬반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너무 일자리가 사실은 아산시에 일자리 부족으로 참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산시에 정말 관심있는 여성 경력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등용하는 것도 아산시가 해야 된다, 시민의 혈세가 아닌 정말 그분들의 인력창출도 저희들이 아산시가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요는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예요, 저는.

매니저도 지금 염치, 인주, 아까 어디가 한 곳에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해서

안 하셨다고 했죠?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 **이기에 위원** 어디요?

염치, 인주, 어디예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5개소입니다.

염치, 인주, 영인, 선장, 온양4동입니다.

○ **이기에 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읍면동에서요, 거기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 **이기에 위원** 직원들이요?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 **이기에 위원** 그래서 늘 평생학습을 살펴보면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게 읍면동 평생학습강좌 등록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개설강좌가 정말 배방이나 탕정이나 이런 데는 개설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평생학습 강좌가 적다, 많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신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싶지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부족해요, 아주 절실히 부족해요.

행정센터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좌가 11개 강좌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떠한 데는 평생학습은 영강좌가 40개가 넘고 어떠한 데는 10개 미만으로 딱 떨어져서 6개, 7개 이게 바로 17개 읍면동의 형평성 문제예요, 저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는 강좌를 40개가 넘는 4배, 5배가 넘는 강좌를 운영하고 어디에는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강좌를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창이 만약에 강좌를 11개 강좌에서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좌를 요청하면 형평성의 논란으로 이거는 강좌가 어렵습니다라고 만약에 집행부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형평성의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맞습니다.

○ **이기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매니저가 여지껏 천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지껏 잘 주민자치 스스로가 잘해 왔던 거를 매니저를 여기에 어쨌든 보조로 서포트를 신청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지원 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 **이기에 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고 주민자치 직원이 하는 일은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저도 구분이 안 돼요.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주민자치회를 맡고 있는 직원은 그동안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회 각종 계획수립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주민자치 일반인들이 서류 작성이라든가 계획서를 세운다든가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제안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천철호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읍면동에 매니저를 그동안 안 했어도 잘 운영을 했는데 굳이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읍면동에서 현황과약을 다 해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서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스장 같은 경우도 기구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리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긴 했지만 운영을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문제점에 대

해서 저희가 보완, 발전해서 좀 더 시민들이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이의 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특히 시내권에도 저는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외곽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에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신입들이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하려 그러면 약간 터줏대감식 스타일로 약간 배제해서 그분이 오래 못하고 그냥 몇 달만 하고 그만두는 데도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극소수이긴 한데 그것들을 그러면 매니저들이 어쨌든 잘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저는 매니저라 하면 17개 읍면동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저는 그게 매니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분들이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해결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을 바로 바로 응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읍

면동에서는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접수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강의장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관리라든가 그런 실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에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순하게 매니저가 있죠.

여지껏 집행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매니저를 선택을 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요, 거기 안에 프로그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기타 토의시간에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전부 다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하고 전부 다 받아주고 어쨌든 각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전부 다 집행부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만약에 한 6개월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한번 서포트를 해 줘 보면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면쪽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에 위원 매니저들이 그만큼 숙지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를 다 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게 저는 매니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포함입니다.

○이기에 위원 예, 그거를 주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니저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더라'라는 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이기에 위원 그래서 이 불편함을 민원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매니저가.

저는 그런 리더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뭐가 문제냐면 주민자치회에서 옆에 직원을 하나씩 붙여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립을 하고 우리들이 어쨌든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신청하고 뭐하고 하는 걸 할 줄 모르니까 그 직원을 통해서 뭔가 하는 역할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연로하신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 빼놓고는요, 요즘에 교육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가 해야 된 다라고 생각해요.

공모도 스스로가 해야 되고 계획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매니저는 뭐고 주민자치회 옆에서 서포트 하는 직원은 뭐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

우선 저는 시범적으로 6개월이나 이런 거는 양쪽을 다 해 보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분명히 하반기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산이나 보고 자료에서 장, 단점이 나와야 된다,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릴게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그동안 프로그램하고 일반 자치사업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자치적인 자체사업만 해당 읍면동에 대한 필요한 그런 사업만 추진을 하고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하고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사무를 지원해 주는 직원이 이중적으로 됐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과장 얘기했지만 상반기 중에 과연 매니저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이 업무가 주민자치회하고 프로그램 하고 이원화 돼 있지만 직원 뽑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당 읍면동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 1월 상반기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그대로 받고 인원이 적은 부분만 폐강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현재는 받았어요, 1분기 프로그램은.

하지만 2분기부터는 수요라든가 기타

수요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폐강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민간 영역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 수요는 있지만 개설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찾아서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던 부분이 헬스장 운영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걸 해 봤는데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조금 더 컨셉이 달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건강과 연관된 부분만 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연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주민자치회 필요로, 주민자치회에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다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 1년 동안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상반기만 기다려 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어쨌든 폐강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원하시는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시작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매니저들하고 직원에 관한 것도 중복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제가 보기엔 정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폐강하는 것도 아까형평성의 논란이라고, 만약에 정말 시골에서는 여지껏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끊임없이 몇 십년 동안 해 오던 강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40개가 넘는 강좌를 하면서 우리 시골에서는 6개, 5개 밖에 없는데 그것도 폐강해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는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에서는 시골 면단위 같은 데서는 의원들한테 향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거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폐강한 거지,

○이기에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고하고 선장하고 만약에 그런 인원이 적어서 1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적으면 도고하고 선장하고 접근지역에서 서로 연결해서 특히 서예 같은 거는 가능하거든요, 풍물하고 서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같은 라인을 같이 타고 있어요, 서예 하시는 분들도 하고 전부 다.

서예하고 풍물은 저는 같이 접근지역

하고 묶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일주일에 주1회, 한 번씩 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에 위원 그런데 최소 3회는 못해도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2회는 해야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디테일하게 좀 더 하셔서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이거를 조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주2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기에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헬스장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천철호 위원** 17개 읍면동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꾸는 건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올라와라.

박경귀 시장이 얼마든지 그게 선정이 되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6개 저기가 선정이 됐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예, 그거예요.

분명히 그런 쪽으로 취지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원 없이 모든 것을 계획도 만들고 수립을 해서 작년에 모범적으로 해서 거기서도 17개 읍면동에서 잘하는 팀 1, 2, 3, 4등,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서 6개 읍면동이 선정이 돼서 올해 예산을 1억씩 확보를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관이 개입되는 순간 주민자치회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6개 읍면동 잘하고 있었잖아요.

스스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소요예산도 짚고 어떻게 할 거고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도 훌륭히 했고 그런데 직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수동적일 수 밖에 없어요.

헬스장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총무님하고 그 과 팀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헬스장이 뭐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날 쓰게 하든지 그다음날 쓰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 고쳐놔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니저가 업체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거기가 바쁘면 2~3일 걸립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완전히 수동적으로 바뀌었죠.

정말 잘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주민자치회가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들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아, 그렇지 않아요.

잘 된 곳도 있고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시다.

○**위원장 안정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간단한 거 좀 여쭙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처음 논의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주구장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고 표

방은 하지만 지금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제 취미, 평생학습이라는 게 취미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직업, 취업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취업의 영역이 굉장히 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그런 예시를 보면 직접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들을 성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서 취업을 좀 더 기대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후에도 직업훈련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중도로 나간 분들이 몇 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취향의 영역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구분화 하셔서 체계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48페이지 교육발전특구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응모 신청은 했고요.

3월에 선정 발표인데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2월 말 정도에 교육부에서 저희가 금주 초에 월요일에 대면심사를 받아왔고요.

2월 말 정도에 교육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교육부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을 시켜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3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선정을 총 몇 개 지자체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계획서상에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하겠다는 건 없고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교육발전특구에 계획이 맞으면 가급적 많이

선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지자체 플러스 교육청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아산시가 대표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랑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1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하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역시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2유형이 있고 3유형은 도가 시군을 지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유형이 3유형이 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가 3유형으로 충남도랑 교육청이랑 신청을 했고 나머지 부여나 논산, 서산이 1유형으로 지자체가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이번에 1차 지정, 신청이 있고 2차 지정이 있습니다.

1차 지정에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넘어간 거고 기다리는 상황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

다.

○**김미성 위원** 사실은 조금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셨지만 아쉬운 지점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계획서 다 낸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다만 이게 지방,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비수도권에서 지방에서 낳고 지방에서 제대로 키우고 지방에서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 않는 것을 교육의 모토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보고 교육부의 사업계획서를 봐도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산시도 기업도 많고 한데 그런 식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 계획들을 마련하시지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작년 11월에 계획이 뜨고 12월부터 공모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까지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도 그리고 대학까지 협의는 우선 기본적으로 다 됐는데 아직 기업체와의 협의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압니다.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주먹구구식으

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 청소년 인문학 캠프 개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모집이 부진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조금 모객을 하는 것이, 모집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청소년들은 결국엔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입시와 관련된 논술 프로그램들을 같이 접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영웅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도 조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가 일전에 했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영웅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인문학 캠프를 할 때 주제였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면서 주제는 별도로 정하고 진행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인문학 캠프 운영했을 때 강사분의 강의와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분반을 해서 주제를 놓고 분반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최종 토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논술을 같이 접목하는 부분은 분반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번 접목 시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교육특구할 때 IB 학교가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김미성 위원** 그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IB학교가 지금 충남에서 IB학교 국제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접목시키는 그런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고등학교가 IB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이 IB학교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하늘고라든가 몇몇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IB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국제교육과정,

○**김미성 위원** 그게 프랑스에서 하는 논술 위주의 수능시험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연계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일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청소년 마을배움터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별로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회는 개소를 좀 더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

은 연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개소를 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서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개소수가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너무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5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자치회가 신청한 게 아니었고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자치회도 있었습니다.

도고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장은 아예 신청을 못했었고 도고도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랑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 갔었던 사항인데 그리고 온양1동, 2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5개 선정을 할 때 읍, 면별로 최대 2개씩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최대한 어쨌든 진행하는 만큼 니즈가 있는 곳에는 프로그램을 더 넣어주고 없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받아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더 수요가 많고 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모집하거나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페이지는 없지만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들었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여쭙볼게요.

주요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에서 민간단체 독서문화 행사보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 좀 알려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하면 대부분 기존에 해 오던 단체가 보조금을 타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기준을 달리 정해서 신규단체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신규단체에서 응모를 하면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기존에 탄 데는 유예를 시킨다든지 2년 정도 유예시킨다든지 못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공모를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다르게 한다는 방법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우선 그동안 응모를 안 했던 단체 그쪽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요.

응모를 하면 기존에 보통 보조금이 한번 수령을 하면 2년이나 3년 정도는 댔던 단체는 못 타도록 유예시키거든요.

그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검토해서 새로 신규단체가 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기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250만 원이 줄었어요.

250 줄면 750이잖아요.

75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3개 단체로 금액은 똑같이 하고요.

3개 단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3개 단체로 운영하기로 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예산으로 담았는데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관장님 시립도서관의 주요 업무가 뭐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과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의 책자를 보면 시립도서관이 분명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맞는데 다 건축 짓는 거예요, 건축.

도서관 건립, 도서관 건립, 꼭 건축과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시립도서관이 건축 짓는 거에 고민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공공시설과에서 짓는 건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공공시설과에서,

○천철호 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 모든 건물은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공공시설과에서 건물은 다 지어놓고 안에 있는 내부시설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게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저도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건축을 지으면서도 행정적인 일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서 하는 부분을 저도 파악을 한 뒤로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문제가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하드웨어까지 다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건물 지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건축 짓는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지고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천철호 위원 건물 짓는 것은 공공시설과가 확실히 건물 다 지어주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면 돼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이게 가장 현명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기에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형선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시립도서관장 전유태